

은 동선 가입자망의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BT의 현행 방법론을 준용하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과대 보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제시하였다. 1차 자문서에서는 모든 과대보상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차 자문서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과대보상 부분만을 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수정하였다. 또 Ofcom은 수정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산정된 가입자망의 원가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원가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Ofcom의 산정결과는 투자보수율을 기존의 투자보수율인 13.5%로 고정하였을 경우, 가입자망의 원가가 약 4.8%~1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2005년 여름경에 LLU와 WLR 요금 산정시에 결정될 투자보수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원가에서 역사적원가 산정방식으로서의 회귀가 필요한지에 대해 Ofcom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가입자망에 신규 경쟁사업자가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시장진입신호가 중요한 고려요소인 만큼 현행원가에 의한 원가산정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Ofcom은 믿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규제의 일관성과 Ofcom의 미래지향적 원가 산정방식의 방향과 일치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다만 1996/97 회계연도에 현행원가로 변동하면서 발생한 과대보상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1] Ofcom, Valuing Copper Access Part 2 - Proposals, 2005, 3, 16
- [2] _____, Valuing Copper Access - A consultation on principles, 2004, 12, 9

인도네시아 통신 개혁 현황

국제협력연구실 주임연구원 홍승연
(T. 570 - 4084, syhong@kisdi.re.kr)

1. 개 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을 위해 1999년 통신법을 개정하고,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등 통신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정책의 큰 방향은 우선 IT

시장의 독점적 환경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통신 운영 업체와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 라이선스 부여 절차, 사용 요금, 상호 접속 및 표준화,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 IT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을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9년에 수립된 인도네시아 통신 개혁 블루프린트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제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성장으로 인한 변화된 새로운 환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인도네시아 통신 개혁 블루프린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WTO, APEC, AFTA 등의 다자 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정보 통신 부문에서의 투자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립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의 성과를 증진시켜 투자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글로벌 수준의 전략 협력 구축을 위한 국영 정보통신 운영자에 대한 기회 제공,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독점적 구조 타파와 경쟁 구도 증진 등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통신 시장의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現 인도네시아 통신 개혁 블루프린트에서는 통신 시장의 거시적 개혁,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조 조정,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 조정, 그리고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전략 및 자유화 정책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다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통신 개혁을 위해 추진해온 통신 개혁 블루프린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통신 개혁의 진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도네시아 통신개혁 블루프린트의 주요 내용

가. 통신 시장의 거시적 개혁

인도네시아의 거시적인 통신 개혁은 산업구조 및 규제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개혁과 현재 통신 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두 국영기업의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1999년 제정된 새로운 통신법 No. 36/1999에 의거하여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 환경 도입을 위한 경쟁체제의 정보통신 산업 구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등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다. 덧붙여 통신 산업, 특히 컨버전스 부문의 글로벌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의 통신 개혁은 비교적 잘 진행됨으로써 점차 정보통신 부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정보격차가 많이 완화되었으며, 통신 부문 주가 상승세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휴대전화 서비스 부문의 경우 완전경쟁 체제에 들어설 정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인도네시아의 통신 구조 개혁이 진행된다면 독점 체제를 이루던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이 조만간 복점(duopoly) 체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 구조 개혁 추진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PT. TELKOM이 실질적으로 국내 통신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으며 PT. INDOSAT이 국제 통신 서비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세분화된 부문별 시장에서 그들이 독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경쟁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PT. INDOSAT, PT. TELKOM 등 독점기업들의 주도적 지위의 남용을 막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통신 개혁을 위해 독점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계속된 특권층 독점으로 인해 단순한 시장 개방만으로는 진정한 경쟁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혁

통신 개혁을 통한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과 제도가 그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新통신법령 상의 기본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정경쟁 정책: 경쟁적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를 기초로 한 통신시장
- 정부의 육성자와 운영자로서의 기능(역할) 분리: 운영자의 역할에서 분리되어 정보통신 시장의 규제, 조정, 정책 수립가로의 정부역할을 강조
- 소유권 구조에서의 비 차별성: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근거로 하여 운영자에게 권한 제공
- 비용에 기초한 관세율: 예상 비용과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세율 규정
- 라이선싱 메커니즘
 - (a) 절차의 간소화
 - (b) 투명·공정·비차별적인 절차
 - (c) 빠른 실행을 주요 방침으로 함
- 통신망 간의 연계
- 보편서비스 방안: 통신 가입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된 네트워크 외의 기타 네

트위크 역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적 표준

(a) 기술적 보편성

(b) 국제표준

○ 소비자 보호: 서비스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

인도네시아의 주요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지불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며 운영과 투자에 있어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장려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법규 마련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 WTO의 권고사항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과점을 막고 공정경쟁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 민간투자를 촉진 시키고, 독자적인 규제기관을 마련, 세제 개혁, 라이선싱, 표준화, 개인자산 운용, 보편적 서비스 등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 통신 산업 구조조정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규제관련 법률은 반독점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통신법 No. 33/1999를 바탕으로 경쟁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을 강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現인도네시아의 통신 시장 운영 패턴은 독점 판매권과 두 기업의 공급 독점(duopoly)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2004년까지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와 국제망 연계 통신 서비스 운영은 PT. TELCOM과 PT. INDOSAT에 의한 두 기업의 공급 독점(duopoly)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며, 국영 유선 장거리 통신망 및 서비스 운영은 2005년까지 PT. TELKOM에 독점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선 지역 통신망 및 서비스 운영은 2010년까지 PT. TELKOM에게 독점 계약되어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두 국영 기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독점 상황에 관여하여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인프라 부문에서도 유선 통신망 시장의 독점적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원천적인 자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무선 통신망 부문 인프라 경쟁의 자유화는 이미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통신 서비스 및 장거리 통신 서비스의 경우 2005년 마련될 예정인 新통신법령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경쟁이 경쟁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인 세율 재조정은 장거리부터 지역 서비스에 걸쳐 보조금을 철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3월 30일 장관 성명을 통해 발표되어 실행하기

에 이르렀다. 또한 독점권에 대한 조기 철폐를 위해 모든 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중복 소유권 철폐로 인한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 최소화, 독점 판매권 종결에 대한 보상 실현, 세율 재조정, 라이선싱 절차에 있어 PSTN의 완전 경쟁 도입 등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구조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구조 조정을 위한 기반으로써 통신 운영과 상호연계접속에 관한 규정, 경쟁적 세이프가드, Modern Licensing 등의 시장 경쟁을 지원하는 기본적 규제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3년 12월 인도네시아 통신 규제조직인 BRTI가 수립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규제 정책은 이미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상호연계접속세율, 장거리 넘버링, 새로운 라이선싱 수립을 통해 투명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규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IP 주소 및 도메인 네임 관련된 규제, VoIP, 보안 시스템, 전파 관련 규제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 자유화 및 표준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신 개혁에서 특히 통신 비즈니스 환경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간 차별 및 특혜 폐지를 통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통신 시장이 개방되고 국영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통신부문 소유권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 진입에 대한 점진적인 장벽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신 시장의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통신 개혁 정책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인 PT. TELKOM과 PT. INDOSAT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CT 표준화 활동은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상호 연결 촉진,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파 관리 및 사용, 지역 소비자와 공공 네트워크 보호, 지역 제조 산업 발전 촉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통신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G Postel은 우정 통신 기술 및 서비스 향상, 국가 표준에 적합한 인증서 발급,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적 자문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표준화 추진에 있어 세계 표준에 적합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정보보호 문제의 해결을 통해 글로벌 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 통신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기술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기술 표준 초안을 준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표준화 승인에 이르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

표준화 작업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기술 인증 과정에서 국방 통신 장비 및 항공이나 항만 관련 특별 통신 장비 이외에는 대부분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ISO 17025나 ISO/IEC Guide 25를 통해 통신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DG Postel로부터 인증 받아 최종 인증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APEC회의에서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동참을 선언하면서 이의 실행을 위해 DG Postel을 해당 담당 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 승인 기관을 마련한 것이며, DG Postel Test House와 PT. Telkom Test House의 테스트 연구 기관을 지정 운영, DG Postel이 인증서를 발급토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부문의 자유화 정책으로는 1999년 정보통신법 No. 36/1999의 핵심 내용을 통해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촉진 등에 목적을 뒀으므로 규제자와 운영자 간 확실한 역할 분담과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자유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네시아의 개혁 추진은 1999년 공식적으로 발표, 독점적 시장을 복점의 구도로 전환하는 한편 WTO, APEC, AFTA 등의 다자 협정을 통해 자유화 추진과 함께 IT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下에 진행되어왔다. 2000년까지는 기술 전환, 정보통신 부문-방송부문-정보기술의 컨버전스를 바탕으로 복점의 시장구도를 경쟁구도로 전환, WTO, APEC, AFTA내 활동과 2003년 정보 사회 실행 계획 및 제네바 선언 등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나 자유화 추진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보다 선진화된 정보통신 기술이 차세대 네트워크(NGN)를 주도하고 완전 경쟁을 이룩하며 자유화에 있어서도 인프라와 비즈니스 발전 등 모든 면을 섭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모든 추진 단계를 거쳐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다시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통신사업 독점권을 완화하여 시장개방을 이룩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국제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1999년에 조기 법개정을 완료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끝에 통신시장이 명목적으로는 개방되기 하였으나 홍콩,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의 외국계 자본이 일부 참여하는 데 그쳐 아직까지는 사실상 대부분 자국 통신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발전된 ICT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법규정과 규제안의 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통신 개혁

블루프린트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Ministry of Communication, Indonesia, 『Blue Print of Indonesia Telecommunication』, 1999
- [2] KISDI, 『The Consultation on Indonesia ICT Policy』, 2004
- [3] 정인억 외, 『2004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결과보고서』, 2004. 12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현황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흥현기
(T. 570-4074, hkhong9475@kisdi.re.kr)

1. 개 요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은 2000년 이전까지 남북대화, 경수로 및 금강산 등 여타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 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소프트웨어부문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사업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2.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현황

가. 전기통신 부문

남북간 통신망은 1971년 남북적십자간 2회선 직접연결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말 현재 남북대화용 30회선, 항공기관제 3회선, 경수로건설 16회선, 금강산관광 13회선,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 2회선 등 총 64회선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용중이다. 직접연결회선은 주로 남북회담 및 군사용 회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성공단의 추진으로 인해 5월 31일부터는 남한과 개성공단간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개성공단내 남한기업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부문의 교류협력은 보다 활발해질